"지방소멸대응기금 가이드라인 완화"

최영일 순창군수,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 서 건의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 ·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역 자율적 운용 필요 강조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1조원씩 돈을 쓰게 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정부의 소멸기금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멸기금 가이드라인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인 최영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 "배분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주고 잘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격이 자주재원인 만큼 인구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자체만의 실질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금의 일정액을 정부 지침상 제한해 온 현금성 사업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면서 "지역사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확대와 유연한 자금 운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순창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지난해 말 2만 6,764명으로 9년 만에 전년도 대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구 유입 성과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주거공간 확대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마련, 대학생활지원금, 농촌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장관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한 최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사무국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현판식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노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대산면 쓰레기 소각장 활용 방안 마련"

남원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숙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산면 쓰레기 소각장 활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신규 광역 소각시설 설치 계획은 순창군의 생활폐기물도 남원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삶의 질 추락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과거 대산 쓰레기 소송으로 남원시가 ㈜거성에 패소하여 혈세를 낭비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소각시설 건립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원시는 지난 12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신규 광역 소각 설치를 위한 국비 291억 원, 도비 87.3억 원을 확보, 2026년까지 총사업비 641억 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100t 규모로 남원지역의 생활폐기물 60t과 순창군 생활폐기물 10t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 남원시 쓰레기도 버거운데, 순창군 쓰레기까지 받아들여 늘리려고 하는지, 이는 무슨 혜택이 있는지 등을 따지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은 '청정구역'이고, 남원시는 쓰레기 특구 지역이냐며, 순창군 쓰레기가 반입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미세먼지, 환경 대기 오염물질 등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어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최 시장에게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망우보뢰(亡牛補牢)라는 한자 성어를 나열하며, 남원은 이제 직매립 제로화를 향해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해 사업 시행추진 이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내 주차공간 확보

남원시는 지난 18일부터 청내 주차장인 제1주차장에 직원들의 주차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이는 시청 제2주차장인 주차타워 완공으로 직원들이 주차타워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제1주차장 직원 공간을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남원시청 주차장은 그동안 관용 차량과 직원 차량, 인근 상가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며 민원인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지난 2월 개방된 시청 주차타워는 주차타워 1층과 2층의 일부만 사용됐다.

이에 남원시는 청내 주차장에 직원 차량을 전면 진입 통제하고 기존 직원 주차 공간(128면)을 민원인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직원은 주차타워 주차를 유도해여 기존에 미활용되던 주차타워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 18일 심 민 임실군수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반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실군-원광대, 반려 산업 '맞손'

글로컬대학30 선정 연계한 반려 산업 육성 박차

임실군이 원광대학교와 손잡고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한 반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심 민 군수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반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컬대학30 선정에 힘을 모았다.

이날 심 민 군수와 박성태 총장은 임실군의 반려동물 관련 자원과 대학의 인적자원, 아이디어를 접목한 반려 산업 육성을 통해 상생·혁신 모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임실군과 원광대학교는 △반려동물 특성화 캠퍼스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지원센터 활성화 관련 사업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등 반려동물 관광 관련 협력 △글로컬대학30 관련 사업 추진 협력 △기타 지역 정책연구 및 국책사업 발굴 등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협력·추진하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원광대와 함께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지역 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수 의견 고장으로서 전국적인 반려 산업의 메카로 임실을 만들어 가는 데 원광대와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협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성태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원광대가 보유한 반려동물 분야의 역량과 임실군의 반려 산업 자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은 오수의견관광지를 전국 최초로 반려 친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180억원 규모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80억원)과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20억원), 오수의견관광지 정비(50억원)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애견 호텔을 민자유치하고,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한 의견문화제를 세계적인 도그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140여건 건의 검토 보고회

남원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공감 열린대화 건의사항 관련한 소관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된 140여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부터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 '2024년 시민공감 열린대화'에서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긍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해결 13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49건 △검토 45건 △상급 기관 건의나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7건 △법령·제도 및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도 17건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건의사항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건의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전체 건의사항 중 65건이 도로 확포장, 하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주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되어, 이 중 시급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해결에 나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2024 순창 장담그는 날' 부스 운영자 모집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이 다음달 13일에 열리는 '2024 순창 장담그는 날' 행사에서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를 운영할 관내 업체를 모집한다.

'2024년 순창 장담그는 날'은 전통장 기능인들과 함께 만드는 장 담그기 행사로,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전통 장담그기 문화를 홍보하고 발효콘텐츠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스운영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순창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 개인사업자이다. 신청방법은 순창발효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sftf.or.kr/)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네이버폼이나 재단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광산업팀(070-4103-2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통합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 간담회 개최

임실군이 최근 2024년 통합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임실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진행됐고,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담당자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담당교사 3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 통합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간의 협조 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와 의료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 및 뮤지컬 공연 등으로 신체활동·영양·금연·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구강 관리 용품을 지원하여 학령기의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